노후준비 인식과 행동에 대한 노후 생활설계 상담의 효과*

The Efficacy of Retirement Planning Counseling on Retirement Preparation Awareness and Behavior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성 혜 영**

Pension Scheme Research Team,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Fellow Sung, Heayoung

〈목 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ndividual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counseling for retirement planning on awareness and behavior related to retirement preparation. The data came from 3,561 adults who received counseling from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awareness and behavior for retirement preparation after receiving counseling services ; (2) young age, type of counseling (comprehensive diagnostics for retirement preparation), and counseling method (face-to-face) had a positive effect on changes in awareness and behavior ; and (3) expertise and adequacy of counseling, as well as the attitude of counselors, had an influence on changes in awareness and behavior.

*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2013) "공공영역 노후설계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의 일부임.
** 주저자, 교신저자 : 성혜영(hysung@nps.or.kr)

Key Words : 노후 생활설계 상담(retirement planning counseling), 노후준비 인식(retirement preparation awareness), 노후준비 행동(retirement preparation behavior)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무엇을 하며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라는 생활양식을 설계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은퇴 이후 인생에 남은 기간이 약 8만 시간에 달하므로 자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加藤, 2008) 이와 유사하게 성공적인 노화, 액티브 에이징, 평생 현역세대 등 노년기 생활의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이 처음 겪는 고령화 시대이므로 노후의 생활에 대한 일반적 또는 표준적 모델이 부재하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공식적인 사회생활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므로 전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제안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적 또는 개인적인 생활설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년기의 증가, 인구구성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동,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위험요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확대된 노년기의 부양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므로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함과 동시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관념적인 생활의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생애 관점에서 볼 때 노후의 삶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뚜렷한 목적이 없으므로 노후 생활설계란 개인 스스로 노년기 생의 목적과 삶의 보람을 계획하는 과정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족자원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후 생활설계 역시 가족의 가치 실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이므로 Gross, Crandall과 Knoll (1980)의 제안과 같이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계획해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충분히 구체화 될 수 있다.

본 고에서 노후 생활설계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 이후 혹은 일정 연령(대체로 60세) 도달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활설계는 스스로의 자조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획득해 어떻게 조직해야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브로셔와 같은 인쇄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중 노후 생활설계 상담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진단해 보거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노년기 생활을 계획해 보는 것을 의미하며 상담 방법은 온라인과 전화, 대면 상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노후 생활설계 상담이 개인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노후 준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관련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생활설계가 노후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보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적 변인, 가족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주로 다루고 이 변인들이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이 변인들은 이미 정해지고 주어진 상황이므로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워 개선방향을 모색하거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기 어려운 연구결과들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노후 생활설계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라는 점도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 못한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노후 생활설계 상담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후준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생활설계 상담 서비스를 받은 이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정도가 증가되었는지, 노후준비 행동이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해 노년기 생활설계 서비스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인·가족적 차원의 생활설계

서구의 발달심리학에 근거한 인간발달 이론은 인간에게는 발달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를 거치면서 그에 따른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Erikson, 1963; Piaget, 1972; 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2 재인용)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발달 이론을 모방한 가족발달 이론은 후기 산업사회 이후 가족 내 친밀감과 가족원간의 관계성에 관심을 둔 미시적 가족이론 연구가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으며 현대 핵가족에게 적절히 적용되었다.

대표적 연구자인 미국의 파슨스는 산업화 이후 가족 형태는 핵가족으로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남편의 직업 역할과 부인의 가사노동 역할이 자녀의 사회화에 기여하고 전체 산업사회의 발달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Parsons & Bales, 1955). 가족발달 이론이 파슨스의 주장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 규범에 의한 보수적 체계를 띄고 있다. 가족의 발달단계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신혼기, 자녀출산 및 영아기, 유아기 가족, 아동기 가족, 청년기 가족, 독립기 가족,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Duvall, 1957; 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재인용)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전체를 가족생활 주기라고 부른다. 가족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주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돕기 위한 생활의 설계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생활설계라는 학문분야가 정립되었다.

지영숙(1997)은 가족생활설계를 앞으로 예측되는 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상을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주체적 노력이며 현재를 방향 짓는 자기인식의 기회라고 정의하였으며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는 개인 및 가족원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안을 보이는 것을 가족생활설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설계론 연구자들은 일본 가정학 연구자들로 부터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학자들이 정리한 생활설계에 대한 개념(지영숙, 1997 재인용)은 다음 <표 1>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日本家政学研究会(1988)의 '생활설계론-가정학에 있어서 생활설계와 생활주체의 형성', 三東(1991)의 '21세기의 라이프스타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들 가정경제학자의 생활설계 논의의 핵심은 제3자에 의한 생활설계가 아니라 생활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성을 지닌 개인이 스스로 변화를 예측하고 계획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설계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학교 교육

〈표 1〉 생활설계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자	개념정의
지영숙(1997)	예측되는 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상을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주체적 노력이며 현재를 방향 짓는 자기인식의 기회
이기영 외(1998)	개인 및 가족원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안을 보이는 것
田辺(1968)	일생을 보다 안정되게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
今井(1971)	생활의 전체성에 대한 시각을 획득하는 것
山本(1983)	부부의 이상과 희망에 따라 가족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그에 기초해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것
岡村(1983)	장래에 예상되는 사회에 있을 새로운 가정의 미래상을 향해 주체적인 자신을 방향짓기 위한 운영계획

이 활용되었는데 중·고교 가정과 교과내용에 생활설계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계획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실천형태로 삼았다(浅田, 1991).

2000년대 이후 생활설계에 대한 연구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지표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시뮬레이션도 보다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高橋, 2008). 또한 중요한 변화는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는 생활주체의 형성이라는 기존 관점이 수정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九木元(2004)는 사회 구조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자신 스스로 생활을 설계하기 곤란해지고 있으므로 자립한 개인을 목표로 한 생활설계의 자주성에 한계가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다음에 기술될 생활설계의 사회규범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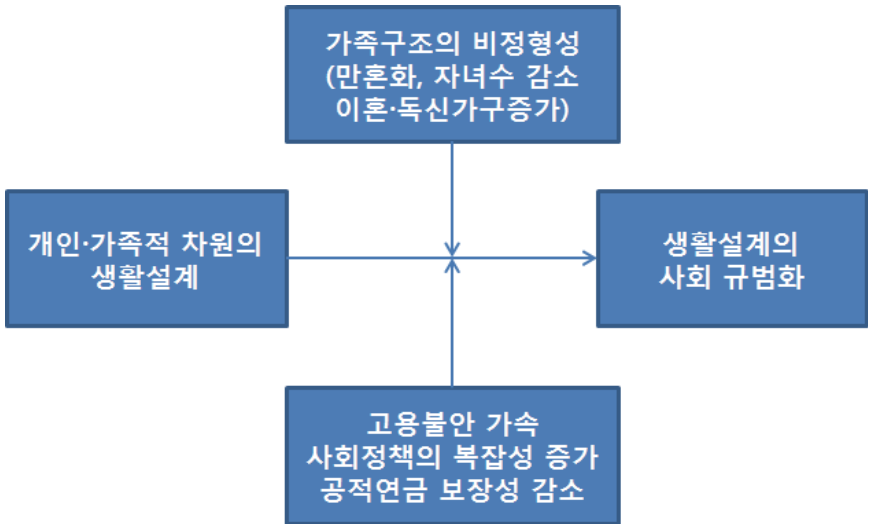
2. 생활설계의 사회규범화

가정학 학문분야에서 미시적으로 접근되던 생활설계 또는 생애설계 분야는 복지사회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사적·선택적 행위로부터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규범적 행위로 변용되고 있다(権, 2010). 산업화와 고도성장 시기에 성립된 표준적 라이프스타일은 점차 부정형화 되고 개인의 책임은 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는 용어로도 설명된다. '개인화'란 과거에 존재했던 계급, 사회적 지위, 성역할, 가족, 이웃관계와 같은 사회적 유형 혹은 형태가 붕괴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Beck & Beck-Gernsheim, 2002).

宮本(2004)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 시기에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표준이 존재했었으며 공업화 사회에 적합한 생애과정의 표준이 확립되어 있었다. 1979년 자민당이 추진한 「일본형 복지사회」에는 개인의 적격한 인생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복지사회에 일본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가족의 친밀성을 국가유지의 자원으로 삼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복지를 공급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형 복지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 안정을 지지하는 2가지 요소로 안정된 가정과 안정된 기업을 들고 있으며 시장서비스와 국가는 가정과 기업을 보완하기 위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구상에는 일하는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 그리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으며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고 아내는 아이가 어릴 때는 전업주부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그림 1〉 생활설계의 사회규범화 과정



*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저자구성

가능하지만 노령기가 되면 자녀와 가까이에 살면서 자녀에 의한 돌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표준을 지지해준 3가지 제도는 학교, 고용, 결혼이었으나 이 제도가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생애 패턴은 부정형화 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은 더 이상 안정된 직장과 연결되지 않고 종신고용제도는 붕괴되었으며 결혼관과 가족관은 변화되었다.

고도성장이 끝나면서 개인의 생활은 남과 달라지게 되고 특별한 플랜이 필요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았던 과거와 달리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무엇이 표준적인 생활인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확대됨과 함께 결혼율과 출산율의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표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양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즉 생활설계란 개인의 자조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으나 각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선택적 행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규범적 행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細江(2013)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활설계의 형태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시스템이 의존적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 즉 가족형성이나 취로를 포함한 사회참여의 동기를 가진 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여유있게 생활하는 시대의 종결로 생활의 리스크가 잠재화됨에 따라 생활설계 능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활설계의 영역이 가족의 수입·지출관리, 자산의 운용, 리스트관리(보험), 상속, 납세 등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생활설계에서는 사적·공적·이념영역에서의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영역이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윤리적 소비, 생활자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 시민사회 형성(룰의 창조와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 시

민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며 사회와의 네트워크(絆)를 중시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는 적극적인 생활자 상을 상정하고 있다.

생활설계가 사회규범적 행위로 변화되고 있는 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결합하여 각종 보험사와 금융사는 은퇴설계, 라이프 플랜, 라이프 디자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이것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은 한정되어 있으며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개인의 몫에 맡겨져 있다.

생활설계의 규범화에도 불구하고 생의 패턴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개별화 개인화 되어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계획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는 것이다. 權(2011)은 이 스스로라는 개념이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생활설계 혹은 라이프디자인 능력에 귀결시켜버리고 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학력, 저소득자들은 재무관련 지식이 낮고 관련 정보를 얻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노후준비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도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Lusardi & Mitchell, 2011).

그러므로 다양한 개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생활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생활설계를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안하는 일이므로 매우 민감함 사항이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일련의 변화들 즉 가족제도의 비정형성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이 제대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 또한 강해지고 있다.

3. 노후 생활설계

그렇다면 전 생애에 걸쳐 생활설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년기 생활설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년기에는 사회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애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대까지는 진학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취업 및 결혼과 자녀의 성장, 자녀 독립, 은퇴라는 목표가 생활에 존재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보편적인 삶의 목표가 없다. 은퇴 후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한 노인의 경우에는 매일의 일상을 무엇을 하며 살아나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기 쉽다. 노년기에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라도 건강 악화나 대인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노년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생애과정보다 중요하다. 노년기에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생각하는 것이 노후 생활설계라면 이것은 단지 중·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시기부터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각각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설계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국가적인 관심도 다른 생애주기의 생활설계에 비해 특히 노후 생활설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노년기는 소득단절로 인한 빈곤위험 및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커 예방적 조치가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된 선진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개인의 노력도 호소하고 있다.

예를들어 엑티브 에이징 즉 활동적 노화와 관련된 정책은 노년기 생활설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고전적인 노년학 이론인 활동이론은 단지 노인을 사회와 유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불과하였으나 Rowe

& Kahn(1997)의 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론으로 발전하여 건강을 유지해 신체적 노화 예방함으로써 질병이 없는 노후를 추구하자는 주장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노인 의료비 절감 정책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최근에는 고령자 대상의 적극적 고용조치의 이론적 토대로도 활동적 노화 이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적극적 고용조치를 통해 노인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연금 지급 개시를 늦추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Mann(2007)의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화 정책을 통해 은퇴자의 활동성을 유지함으로써 복지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향후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년기 연장에 대비해야 할 국가적 책무와 개인의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노후 준비가 필요하며 노후준비 의식제고와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비스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의 방법은 상담, 교육,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브로셔나 소책자를 활용한 인쇄물을 보급 등 다양하다(OECD, 2005). 이 중 상담은 생활설계 전문가와 노후 준비 수준을 점검해 보고 사회적관계, 건강, 재무, 여가의 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관해 개별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면상담의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4. 노후준비 인식과 행동에 대한 노후 생활설계의 효과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 제공의 가장 일차적 목적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준비 인식이나 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의 효과를 다루기보다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나 심리적 변수 혹은 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성희·김순미·김혜연(2006)의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문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자산,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자아존중감이었다. 30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귀연·배문조(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 인식이 높고 50대 보다는 30대와 40대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노후준비 인식도가 높았으며 더불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인식 수준이 높았다. 노후준비 행동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낮을수록 소득은 높을수록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경욱·박미연·김연주(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 직업, 주거형태가 은퇴재무설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은퇴재무설계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과 같은 노후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선형·최은희(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소득, 직업유무,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노후준비 행동을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 구분한 연구(강유진, 2005)에서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상태와 연령이었으며 사회적 영역은 교육수준, 신체적 영역은 연령이 중요한 변수였다.

그 밖에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자아존중감 및 내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노후생활 계획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홍성희·김순미·이경희·김혜연·곽인숙·김성희, 1997)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거나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노후준비 행동 수준이 높으며(전귀연·배문조, 2010) 자신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의

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준비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전혜성·김미영, 2012). 또한 가계부채가 적고 자산에 만족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았다(홍성희·곽인숙, 2006).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는 전귀연·배문조(2010)의 연구가 있었다.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거나 언론 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행동 수준이 높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을 때 노후준비 행동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또한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의 연구에서도 은퇴지식이 재정적 은퇴준비 행동과 건강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노후 생활설계 상담을 통해 습득한 은퇴지식이 노후준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허균석(2013)의 연구에서는 은퇴 상담이 예상 은퇴생활 수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준비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OECD (2008)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적 이해도는 교육수준 및 수입과 관련이 있으며 재무 정보를 이해하고 발견하는데 대한 어려움은 연금가입과 은퇴후를 대비한 저축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무지식은 노후 생활설계와 연관성을 가지는데 Lusardi와 Mitchell(2011)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층과 노년층보다 중년층이, 저학력보다 고학력층이 재무지식이 높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재무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적 노후준비 수준도 높았다. Clark, d'Ambrosio, McDermed와 Sawant(2006)은 재무교육 세미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은퇴의 목표나 저축행동에 변화를 보이게 되며 은퇴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노후설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생활설계 상담 서비스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행동 유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노후 생활설계 상담의 서비스 품질은 어떠한가?
2. 노후 생활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후준비 행동변화는 어떠한가?
3. 성별, 연령대, 상담종류, 상담방법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후준비 행동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4.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후준비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분석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준비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노후준비 인식도 설문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생활설계 상담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매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분기 및 2분기 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노후 생활설계 상담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문을 종료한다. 총 3,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후 생활설계 상담을 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3,561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생활설계 상담은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1회 상담이며 상담의 내용은 노후준비 종합진단, 재무설계, 건강설계, 대인관계, 여가생활,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시간은 평균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2. 질문지의 구성

조사 내용은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상담품질과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 이용 전후의 변화로 구성되었다. 이 중 상담품질로 전문성, 적절성, 응대태도의 3개 문항과 함께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비스 품질이 조사되었다. 노후준비 종합진단의 서비스 품질은 노후준비도 측정을 위한 진단지와 그 결과가 본인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있다고 보는지(진단일치), 노후준비 종합진단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추천의향), 진단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도움영역)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 이용 전후의 변화는 상담전후를 비교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인식변화)와 상담전후를 비교해 실제 노후준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행동변화)에 대한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후준비 종합진단의 도움영역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포함해 질문지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χ^2검증,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노후준비 인식도 및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20.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1,670명(46.9%) 여자가 1,891(53.1%)명으로 여자의 사례가 약간 더 많았다. 조사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를 포함한 전국이었다.연령대는 30대 미만이 38명(1.1%), 30대가 129명(3.6%), 40대가 421명(11.8%), 50대가 1,944명(54.6%), 60대가 1,029명(28.9%)으로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자가 받은 노후 생활설계상담 방법은 방문상담이 3,008건(84.5%)로 가장 많았고 전화상담이 398건(11.2%), 온라인 상담은 6건(0.2%), 기타가 31건(0.9%)였다. 상담종류는 재무설계가 2,022건(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노후준비 종합진단이 1,078건(30.3%), 건강이 393건(11%)의 순이었다.

2. 노후 생활설계 상담의 서비스의 품질

상담의 전문성, 적절성, 응대태도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노후 생활설계 상담서비스의 내용이 전문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89%(3,170명)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대답한 0.6%(20명)에 대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

* 노후준비 종합진단은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 활동 분야에 대한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해 그 결과를 보여주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 3,561)

변수		명(%)
성별	남	1,670(46.9)
	여	1,891(53.1)
연령대	30대 미만	38(1.1)
	30대	129(3.6)
	40대	421(11.8)
	50대	1,944(54.6)
	60대 이상	1,029(28.9)
조사지역	서울	799(21.3)
	경기권	949(25.3)
	강원	132(3.5)
	충청권	410(10.9)
	전라권	347(9.2)
	경상권	1068(28.5)
	제주	48(1.3)
상담방법	방문	3,008(84.5)
	전화	398(11.2)
	온라인	6(0.2)
	기타	149(4.2)
상담종류	노후준비 종합진단	1,078(30.3)
	재무	2,022(56.8)
	건강	393(11.0)
	대인관계	10(0.3)
	여가	42(1.2)
	일	16(0.4)

타내었다.

노후 생활설계 상담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3.9%(2,988명)로 비교적 높았으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공손하고 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6%(3,476명)로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중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1,078명만을 대상으로 그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지와 그 결과가 본인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관해서는 78.8%(850명)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0.7%(26명)에 그쳤다.

노후준비 종합진단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79.5%(857명)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4.4%(47명)였다.

노후준비 진단 프로그램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영역은 재무영역이라는 응답이 36.6%(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강이 30.7%(331명), 여가 17%(183명), 대인관계 13.5%(145명)의 순이었다.

〈표 3〉 서비스 전문성, 적절성, 응대태도

(N= 3,561)

문항	응답 명(%)			검증통계량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상담서비스 내용이 전문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전문성]	3,170(89.0)	371(10.4)	20(0.6)	χ^2=5,021.09*** (df=2)
제공받은 정보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었는가? [적절성]	2,988(83.9)	510(14.3)	63(1.8)	χ^2=4,183.07*** (df=2)
서비스 제공 직원의 태도는 친절하였는가? [응대태도]	3,476(97.6)	79(2.2)	6(0.2)	χ^2=6,623.38*** (df=2)

***p<.001

〈표 4〉 노후준비 종합진단의 진단 일치성과 추천의향

(N= 1,078)

문항	응답 (명, %)			검증통계량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노후준비 종합진단은 본인의 상태를 잘 진단하였는가? [진단일치성]	850(78.8)	202(18.7)	26(2.4)	χ^2=1,048.10*** (df=2)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다른 이에게 추천하겠는가? [추천의향]	857(79.5)	174(16.1)	47(4.4)	χ^2=1,056.33*** (df=2)

***p<.001

〈표 5〉 노후준비 종합진단의 도움영역

(N= 1,078)

문항	응답 (명, %)					검증통계량
	재무	대인 관계	여가	건강	모름	
가장 도움이 된 영역은? [도움영역]	395 (36.6)	145 (13.5)	183 (17)	331 (30.7)	24 (2.2)	χ^2=409.37*** (df=4)

***p<.001

3. 노후 생활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후준비 행동 변화

노후 생활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후준비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결과를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생활설계 상담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를 비교할 때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81.%(2,912명)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증가하였다고' 대답해 '인식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한 3.8%(135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노후 생활설계 상담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의 실제 노후준비 행동에 대해서는 61.6%(2,193명)가 노후준비 행동이 '크게 증가'하거나 '조금 증가'했다고 답해 '전혀 변화가 없다' 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답한 19.3%(687명)에 비해 높았다.

인식변화와 행동변화의 범주가 동일한 확률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일표본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소 기대값은 인식변화와 행동변화 모두 1.187이다. 검증결과 인식변화의 통계값은 3,820.77(p<.001), 행동변화의 통계값은 1,278.92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성별, 연령대, 상담종류, 상담방법에 따른 노후준비 인식변화와 행동변화

다음으로 성별, 연령대, 상담종류, 상담방법에 따라 노후준비 인식변화와 행동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인식변화와 행

〈표 6〉 노후 생활설계 상담 후의 인식변화와 행동변화

(N= 3,561)

문항	응답 (명, %)			검증통계량
	‘크게 증가했다’ ‘조금 증가했다’	그저 그렇다	‘전혀 변화없다’ ‘거의 변화없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가? [인식변화]	2,912(81.8)	514(14.4)	135(3.8)	χ^2=3,820.77*** (df=2)
실제 노후준비 행동이 변화하였는가? [행동변화]	2,193(61.6)	681(19.1)	687(19.3)	χ^2=1,278.92*** (df=2)

***p<.001

〈표 7〉 노후준비 인식변화의 차이

종속변수 / 독립변수	노후준비 인식변화		
	N	M(S.D)	검증통계량
성별	남=1,670 여=1,891	4.32(.88) 4.31(.88)	t=.31
연령대	40대 이하=588 50대 = 1,944 60대 = 1,029	4.40(.84)a 4.33(.86)a 4.25(.92)b	F=6.03**
상담종류	재무=2,022 종합진단=1,078 기타=462	4.29(.88)a 4.40(.82)b 4.23(.95)a	F=8.19***
상담방법	방문=3,008 전화=398 온라인등기타=155	4.36(.85)a 4.11(.99)b 4.11(.93)b	F=18.17***

**p<.01, ***p<.001 ab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표 8〉 노후준비 행동변화의 차이

종속변수 / 독립변수	노후준비 행동변화		
	N	M(S.D)	검증통계량
성별	남=1,670 여=1,891	3.72(1.21) 3.69(1.21)	t=.57
연령대	40대 이하=588 50대 = 1,944 60대 = 1,029	3.79(1.16)a 3.74(1.21)a 3.58(1.24)b	F=7.57**
상담종류	재무=2,022 종합진단=1,078 기타=462	3.72(1.22) 3.70(1.19) 3.66(1.22)	F=.34
상담방법	방문=3,008 전화=398 온라인등 기타=155	3.75(1.20)a 3.53(1.26)b 3.25(1.27)c	F=16.79***

**p<.01, ***p<.001 ab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동변화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의 경우가 인식변화와 행태변화 모두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상담종류에 따라서는 종합진단 서비스를 받은 집단이 재무설계나 기타(대인관계, 여가, 건강 등) 상담을 받은 집단에 비해 인식변화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상담 방법을 방문, 전화, 온라인 및 기타의 세 집단으로 분류해 인식변화와 행동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에 의한 상담을 받을 경우가 전화와 온라인 및 기타 방법에 의한 상담보다 인식변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행동변화 수준도 유의하게 높았다.

5. 노후준비 인식변화와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다음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후준비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성별, 연령대, 노후준비 종합진단 실시여부, 방문상담 여부, 상담의 전문성, 적절성, 상담사의 응대태도의 총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의 진단을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는 .6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의 실시결과 인식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후준비 종합진단 실시여부, 방문상담 여부, 전문성, 적절성, 응대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준비 종합진단의 실시가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는에 도움이 되며 다른 상담보다 상담자와 대상자가 직접 대면해 상담을 실시하는 방문 상담이 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상담이 전문적이었다고 생각할수록, 제공받은 정보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상담사의 태도가 친절하다고 생각할수록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행동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변수는 연령대, 상담방법, 전문성, 적절성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행동변화의 수준이 낮았고 방문상담의 경우가 행동변화에 보다 효과적이었으며 상담이 전문적이고 제공받은 정보가 적절했다고 생각할수록 행동변화의 수준이 높았다. 응대태도는 노

〈표 9〉 노후준비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N= 3,561)

종속변수 / 독립변수	노후준비 인식								
	모델I			모델II			모델III		
	B(β)			B(β)			B(β)		
성별	.024	(.014)		.026	(.015)		-.006	(-.004)	
연령대	-.060	(-.055)	**	-.062	(-.057)	**	-.028	(-.026)	
상담종류				.103	(.054)	**	.118	(.062)	***
상담방법				.267	(.110)	***	.107	(.044)	**
전문성							.184	(.147)	***
적절성							.421	(.384)	***
응대태도							-142	(.069)	***
상수	4.552			4.303			.930		
F	5.350			26.509			417.552		
R^2	.003			.015			.256		

** p<.01, *** p<.001

〈표 10〉 노후준비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N= 3,561)

종속변수 / 독립변수	노후준비 행동								
	모델I			모델II			모델III		
	B(β)			B(β)			B(β)		
성별	.047	(.019)		.052	(.022)		.016	(.006)	
연령대	-.093	(-.062)	***	-.119	(-.079)	***	-.079	(-.052)	**
상담종류				-.038	(-.014)		-.018	(-.007)	
상담방법				.326	(.097)	***	.162	(.048)	**
전문성							.173	(.100)	***
적절성							.507	(.335)	***
응대태도							.034	(.012)	
상수	4.061			3.900			.705		
F	6.775			17.132			225.690		
R^2	.004			.010			.158		

** p<.01, *** p<.001

후준비 인식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행동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의 하나인 노후 생활설계 상담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생활설계 상담의 서비스 품질은 전문성, 적절성, 응대태도 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후준비 종합진단에 관해서도 진단의 일치성이나 추천의향 모두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아 서비스 품질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노후 생활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행동변화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노후 생활설계 상담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설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노후준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적인 변인, 가족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주로 다루고 이 변인들이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사실, 이 변인들은 개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지거나 고정된 것이므로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거나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결과들이었다.

반면,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 제공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설계 정책 및 서비스의 활성화가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는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거나 언론 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는 전귀연·배문조(2010)의 연구나 재무교육 세미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은퇴의 목표나 저축행동에 변화를 보이게 되며 은퇴에 대한 인식변화를 나타내게 된다는 Clark와 그 동료들(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노후준비 인식변화와 노후준비 행동변화는 연령대, 상담종류, 상담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후 노후준비 인식변화와 행동변화 모두에 대해서60대가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능한 젊은 시기에 노후 생활설계를 받는 것이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종류에 따라서는 노후준비 종합진단이 다른 종류의 상담과 비교해 노후준비 인식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현재의 노후준비 수준을 영역별로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검에 보는 것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담방법에 따라서 방문상담의 경우가 다른 종류의 상담에 비해 인식변화와 행동변화에 보다 유용하였는데 직접 상담자를 대면해 상담을 받는 것이 전화나 온라인과 비교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넷째, 상담의 품질 즉 전문성, 적절성, 응대태도는 노후준비 인식변화와 행동변화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상담을 받았다고 느끼고 상담자의 응대태도가 친절하였다고 생각한 대상자일수록 노후준비 인식변화와 행동에 변화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컨텐츠와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노후 생활설계 서비스를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준비 종합진단의 고도화를 포함한 상담 내용의 전문성을 키워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노후 생활설계가 재무적인 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2003년도부터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무교육 프로젝트와 그 결과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노후 생활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05년도에 발표된 '재무지식의 향상 -이슈와 정책분석'에서는 재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요인으로 OECD 각국의 베이비부머들의 기대 여명의 증가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베이비 붐 시기를 겪었으며 이들 베이비부머의 퇴직 시기는 최근 10년간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베이비부머가 낳은 자녀수는 급격히 줄어 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부머의 기대여명은 과거 어느 때 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불확실한 은퇴 이후 기간의 생활을 위해 연금과 저축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요구되나 실제 이들의 재무지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을 비롯해 자신의 기대 여명이나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수입, 개인의 환경변화까지 고려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도움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이상의 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행동의 변화에 대한 노후 생활설계의 상담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응답 빈도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담 전과 상담 후를 비교한 사전 사후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온 경제적 변인과 학력 변인이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투입되지 못했다. 보다 확실한 정책 자료로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 차이 및 학력 차이를 고려할 때 노후 생활설계 상담이 노후준비 인식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또한 본 연구는 상담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노후 생활설계 교육이나 각종 인쇄물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2)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3)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서울 : 교문사.
4)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93-212.
5) 전귀연·배문조(2010). 성인기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3-24.
6) 전혜성·김미영(2012). 중년기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와 개인의 노후설계간 관계성 탐색. 보건사회연구, 32(2), 206-231.
7)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2).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8) 지영숙(1997). 현대 가족생활설계론. 서울 : 학지사.
9) 차경욱·박미연·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10)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 심리적 요인과 자원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133-162.
11) 허균석(2013). 경제적 은퇴준비 특성과 은퇴생활수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13) 홍성희·김순미·김혜연(2006).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 생활문제 인식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95-115.
14) 홍성희·김순미·이경희·김혜연·곽인숙·김성희(1997).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인의 생활문제 인지와 생활계획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151-169.
15) Beck, U. & Beck-Gernsheim, E.(2002). Individualization. London : SAGE
16) Clark, R. L., d'Ambrosio, M. B. McDermed, A. A. & Sawant, K. S.(2006). Retirement plans and saving decisions: the role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5(1), 45-67.
17)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8) Hosoe, Y.(2013). Senior Life Design in the Positive Welfare Era. IAGG 2013, 국민연금 세션 발표자료.
19) Lusardi, A. & Mitchell, O, S.(2011). Financial literacy around the world: an overview.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10(4), 497-508.
20) Mann, K.(2007). Activation, Retirement Planning and Restraining the 'Third Age'. Social Policy and Society, 6(3), 279-292.

21) OECD(2005).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OECD.
22) OECD(2008). Improving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OECD.
23) Parsons, T. & Bales. R.F.(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 : The Free Press.
24)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1.
25) 浅田辛子(1991). 生活生計教育論. 東京 : 明文書店.
26) 加藤仁(2008). 定年後の8万時間に挑む. 東京 : 文藝春秋.
27) 九木元真吾(2004). 生活設計論の現在ー「自分」に基ずく生活困難ー. 生活経営学研究, 39, 62-70.
28) 権永詞(2010). 社会規範としてのライフデザイン「自立した個人」の創出と生活設計·生涯設計の政策展開. KEIO SFC JOURNAL, 10(2), 101-112.
29) 権永詞(2011). ライフデザイン論の可能性と陥穽ー「自立」を強いられる社会における「生活の形」の創造ー. 現代社会学理論研究, 5, 76-88.
30) 高橋桂子(2008). 生活設計シミュレ-ションを通した将来設計能力の育成. キャリア教育研究, 26, 69-79.
31) 三東純子(1991). 21世紀のライフスタイル—豊かさとゆとりを求めて. 東京 : 朝倉書店.
32) 日本家政学研究会(1988). 生活設計論—家政学における生活設計と生活主体の形成. 東京 : 朝倉書店.
33) 宮本みちこ(2004) . 第3章 生活経済とライフスタイル, 少子高齢化社会と生活経済. 東京 : 建帛社

■ 투 고 일 : 2013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18일